

우리나라 고3생의 인터넷 사용량에 따른 심리, 행동, 대인관계 특성의 차이

이 미 리* (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지도전공)

I.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고3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특성이 어떠한지를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고3생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살펴본다.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독의 증상이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공통된 심리적, 행동적, 그리고 대인관계적 부적응을 보인다. 이를테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인터넷을 하는 것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권태감을 많이 느낀다(이현아, 2004). 매사에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며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반사회적인 행동 수준이 높다(이해경, 2002).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소영, 2000; 이송선, 2000; 정경아, 2001). 혼자서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에는 주로 혼자 지내게 되어서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이숙, 남윤주, 2004).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이정윤, 이명화, 2003). 뿐만아니라 게임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이 커지게 되고 부모의 눈을 피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방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게임 아이템을 팔고 사는 불법 거래, 해킹 등과 같은 일탈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성윤숙, 이소희, 2003). 학업성적이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게임을 하느라고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자지 않는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이현아,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적응의 문제가 중독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다음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 1) 인터넷 과다사용 남학생과 과소사용 남학생은 심리, 행동, 대인관계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가
- 2) 인터넷 과다사용 여학생과 과소사용 여학생은 심리, 행동, 대인관계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04년 제1차 한국교육고용패널에 참여한 고3 남학생 1117명과 여학생 883명 중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남, 여학생 98명과 하루 평균 30분미만 사용하는 남, 여학생 4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한국교육고용패널 연구를 위해 개발한 질문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에서 심리, 행동, 대인관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표1참조)

〈표 1〉 심리, 행동, 대인관계 특성 변인들

변 인	문항내용
심리적 특성변인	자아관, 스트레스,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직업결정여부, 자살고민여부
행동적 특성변인	건강상태, 수면시간, TV시청시간, 혼자공부시간, 흡연여부, 음주여부, 가출경험
대인관계 특성변인	형제와의 대화빈도, 부모와의 관계, 따돌림경험여부, 성관계경험여부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대상 중에서 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남학생 중에서 7%, 여학생 중에서 3%로 그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 특성은 컴퓨터를 적게 사용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부정적이었다. 하루에 3시간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남학생들은 30분정도로 사용하는 남학생들에 비해서 자아관이 덜 긍정적이고 가정 경제와 부모와의 불화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이나 성적에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적다. 또한 이들은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TV를 더 많이 보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고, 왕따, 흡연, 음주, 가출, 성관계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하루에 3시간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30분미만 사용하는 여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자아관이 더 부정적이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또한 이들은 TV를 더 많이 보고 흡연, 가출, 성관계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인터넷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나 일상생활에서 하루평균 3시간이상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는 고3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적응 수준은 30분미만으로 사용하는 고3생들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인터넷 과다 사용이 이러한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부적응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인터넷 과다사용 행동과 이들 부적응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다른 독립변인과 관련되어 함께 변산(variate)하는 변인인지는 횡단적인 데이터로 검증할 수는 없으나 모두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 사용의 문제는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 영역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과다사용 행동은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 특성과 함께 나타나는 부적응 변인이므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